

연구 자료

유럽 주요국의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의 동향과 시사점

박 문 호* 박 영 구**

Key words: 농업인 교육·훈련(educational training for farmers),
 민간위탁교육(educational training of non-government consignment),
 교육사례(case of educational training),
 유럽의 농업인 교육(farmers educational training system in Eu)

Abstract

Nowadays, as agricultural market has been rapidly opened, many agricultural counterplans have been established to secure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in Korea. but the most important thing among counterplans is manpower which keeps potentials of agricultural competitiveness.

Particularly, in modern society knowledge and information are play an important role in value creation. So development of manpower is kernel for each country's national competitiveness.

Agri-educational body, association and administration have to guarantee their specialized function and improved quality of system, as key function of manpower development

In order to get implication point in Korea,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agri-educational system of developed countries.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losely for farmers educational training system of EU. In Particular, farmers vocational education trend that shifted from government to non-government is on focus in this study.

1. 머리말
2. 유럽의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의 동향
3. 주요국의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의 실태
4. 유럽의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의 시사점

* 부연구위원

** 위촉연구위원

1. 머리말

WTO/DDA협상, FTA협상 등 급격한 농업시장 개방 하에서 우리나라는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경쟁력을 견인할 우수한 농업 인력의 확보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효과적으로 추진되기 어렵다.

특히, 오늘날 사회 전반이 산업사회에서 지식 및 정보화 사회로 전환되면서 지식과 정보는 새로운 가치창출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적자원의 개발이 국가경쟁력의 핵심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인적 자원 개발의 중심으로서 농업인 교육기관의 기능을 특성화하고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시스템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농업인 직업교육이 공공교육 중심에서 민간교육으로 전환되고 있는 유럽 제국의 농업인 교육·훈련시스템을 검토하여 우리나라 농업인 교육·훈련체계 개선에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2. 유럽의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의 동향

2.1. 교육·훈련사업의 추진주체

서유럽 각국의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은 그 성립과 이후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몇 가지의 형식으로 구분된다.

첫째, 정부가 농민의 교육 및 경영지원에 직접 관여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직접 관여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농업교육·훈련 조직을 운영하고, 사업운영에 관한 재정도 부담하기 때문에 지도인력은 국가공무원이다. 과거의 프랑스, 잉글랜드 및 웨일즈, 네덜란드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둘째, 각 지방정부가 교육·훈련사업의 주체가 되고, 정부에서 일부를 보조하는 방식이다. 독일서부·남부의 4주, 그리고 스위스 등이 이에 속한다.

셋째, 여러 농업단체 및 농민조직이 몇 가지 방식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원조를 얻어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방식이다. 프랑스, 독일 북서부 여러 주, 스위스의 일부, 덴마크, 네덜란드 사회경제지도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 외의 형식으로 미국과 같이 대학이 학외 교육의 일환으로 교육·훈련사업을 실시하는 것(스코틀랜드), 농민그룹이 자체적으로 지도인력을 가지고 있는 것(북독일의 일부) 등이 있으나 이러한 것은 예외적인 교육·훈련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2.2.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의 특징

각국의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의 공통된 큰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훈련사업에 대해 정부의 입장 변화이다. 재정사정의 어려움, 농업구조의 변화, 농업에 대한 요구변화, 그에 따른 사업의 기능개편 등 농업인 교육·훈련의 여건변화에 따라 정부 주도의 사업이 민간 또는 단체로 이관되고, 동시에 서비스 비용도 점차 유료화되고 있다(영국, 네덜란드).

둘째, 원래 유럽의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은 독점사업이 아니라 농업단체, 농업법인 또는 농업사업체, 컨설팅 회사 등 경쟁관계에 있는 각각의 주체가 사업을 이끌어 왔으나, 최근 공공지도사업이 쇠퇴하면서 민간컨설팅트가 활발히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등 각 교육·훈련조직 간의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셋째, 교육수요 면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힘이 약한 농가에 대한 교육·훈련사업이 점차 경쟁력을 가진 전업 농가에 대한 지원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농업의 규모화가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지역경제를 쇠퇴시킬 수 있는 문제점 때문에 건전한 복합영농의 확립을 교육·훈련사업의 주요과제로 추구하는 국가도 있다.

넷째, 자연보호, 환경보전, 농촌경관 유지,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에 따라 기존 교육·훈련사업의 개념과 활동영역이 점차 다양한 부분으로 확대되고 있다.

3. 주요국의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의 실태

3.1. 독일

남독일의 경우 산간지대가 많고 농가의 경영규모도 작아 경영이 어려운 농가가 많고 이에 따라 상당한 부채문제도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도원들은 부채정리와 농가재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므로 재건전망이 불투명한 농가에 대해서는 부채정리에 대한 컨설팅과 함께 이농을 권하고 있는데, 노동관련 행정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농민의 전직을 위한 직업훈련과 보조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나아가 이들은 향후 가족의 수입에 대한 컨설팅까지 담당하는 경우도 있다.

3.1.1. 독일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의 특징

독일 보급사업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다섯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기본적으로 직업교육과 지도사업이 일체적으로 실시되고 있어 농업학교교사가 농업지도원을 겸하고 있다. 둘째, 생활분야의 교육사업이 농업분야의 교육사업과 병행해서 실시되고 있다. 셋째, 각 지자체의 환경에 따라 제도 및 교육내용이 상이하다. 넷째, 중앙정부가 각 지역의 교육·훈련사업 운영경비에 대해 직접적인 부담을 갖지 않는다. 다섯째, 교육·훈련사업의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무료이다.

이 중 중요한 것은 지도원이 농업학교, 가정학교의 교사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교육면에서 보면, 지도원에 의해 실천적인 직업교육이 가능하고 한편, 지도의 측면에서 보면 후계 농업인력이 학교를 졸업하고 취농을 시작할 경우에도 일관된 지도체계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론과 실천의 이원교육체계(Dual system)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교육지도의 효과를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농업기술의 진보, 지도원의 업무부담 과중 등으로 인해 점차 전임 교사, 전임지도원으로 기능이 분화되고 있다.

3.1.2. 교육훈련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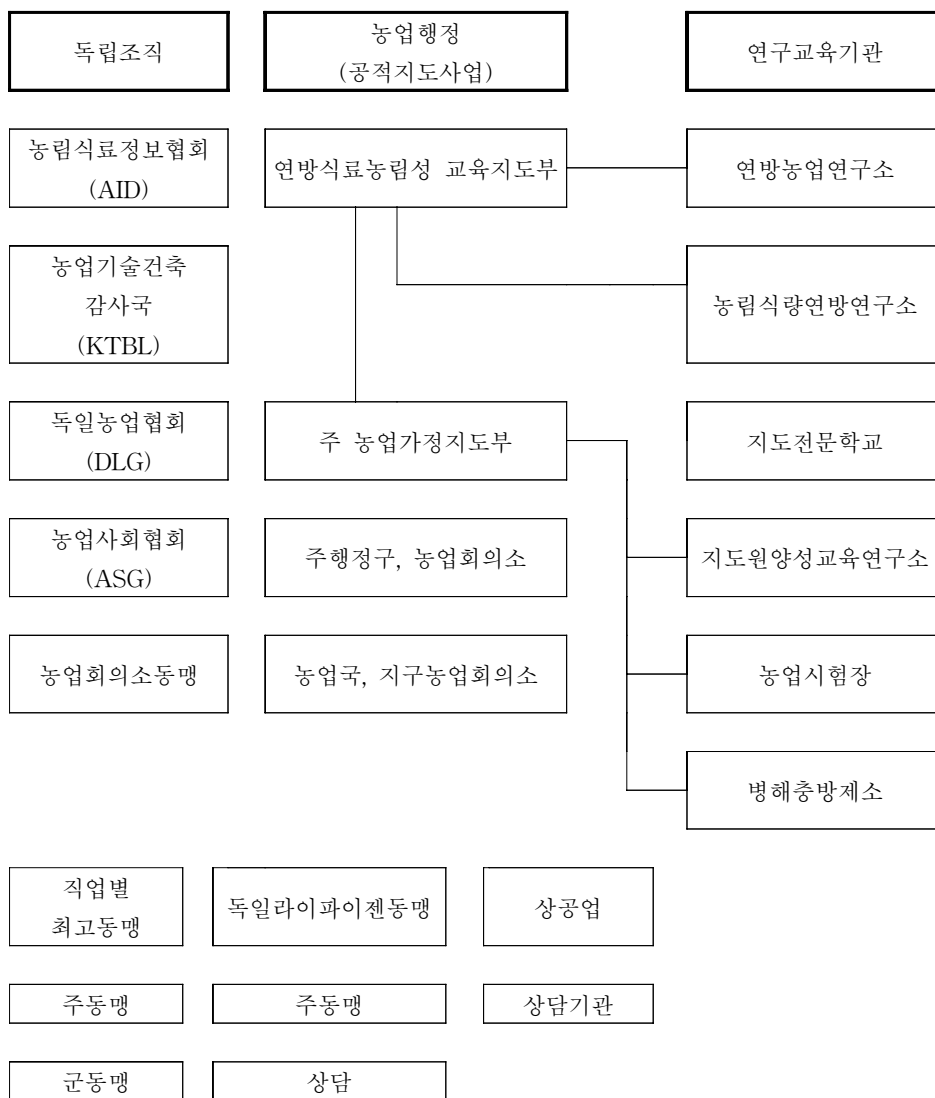
독일의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제도는 상당히 복잡하고 지방 분권화되어, 각 지방은 독자적인 지도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그림1).

독일의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은 일반적으로 주정부가 재정의 전체를 부담하고 있는 공적방식과 재정의 대부분을 사적부문에 기대하고 있는 비공적 방식으로 나뉘어진

다. 각 지방정부에 따라 그 제도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남독일의 각 주에서는 공적사업을 축소하여, 이른바 ‘모델지도사업’을 창설하고자 하는 활동도 있다.

각주의 제도 및 지도활동은 각각 주의 조건에 따른 독자성을 가지고 있지만, 남부, 서부의 바이에른, 바덴·뷔르템베르크, 라인랜드·팔츠, 자르랜드의 사업은 농업행정부 기능의 하나로 수행되고 있다.

그림 1 독일의 공적 농업교육·훈련사업의 기구표



헛센, 노르트라인·웨스트팔렌, 니다작센, 주레스비히·홀슈타인의 북부, 중부, 동부에서는 농업회의소가 업무를 주관하고 있으며, 농업행정기관은 전반적인 감독 정도만을 수행하고 있다. 농업회의소는 공공법인으로 전독일에 12개소가 운영 중이며 가장 큰 업무내용은 역시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이라 할 수 있다. 농업회의소에서는 전문기술원을 배치하여 농업 각 분야에 대한 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지도원의 활동거점은 지구의 농업회의소가 되고 사업에 필요한 재정의 일부는 농업회의소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지방정부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진다.

3.1.3. 농업회의소가 주도하는 사례:

라인랜드 농업회의소

농업회의소가 담당하는 업무는 농업행정, 농업·가정학교, 교육·훈련사업의 세 가지로 독일 농업행정기관의 행정하청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도사업은 실질적으로 산하기관인 지구농업회의소가 담당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농업학교의 교사가 지도원을 겸하고 있지만, 최근 농업행정관계 업무까지 맡게 되었다. 학교 수는 농업후계자의 감소, 학교의 집약화 등에 의해 줄어들어 40개교에서 현재는 6개교로 압축되었고 향후 점차 규모화하여 4개교로 줄일 계획이다. 농가 및 후계자 수의 격감을 상징하는 숫자라 할 수 있다.

지구농업회의소의 업무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농업행정부문 = 농지상속, 수·위탁, 토지이용계획, 환경보호, 수리계획

- ② 지도사업부문 = 경영, 작물, 원예, 축산, 건축, 가정의 지도활동

- ③ 직업학교·성인교육부문 = 경영, 재배, 축산, 가정

지도원은 주 10~15시간의 수업(주로 오전중)을 담당하며, 오후는 지도의 준비, 농가지도, 행정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매우 다양한 업무내용을 보고 있다. 농가지도 수요는 계절에 따라 다르나 주로 농가에서의 요청이 많은 여름이 중심이며, 겨울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지도원이 교사를 겸하는 것의 이점은 '수업준비가 곧 지도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며, 또한 지도활동을 통해 얻은 경험이 실질적 수업에 플러스 요인이 된다는 것이다. 라인랜드 농업회의소의 지도원 수는 20명 정도이며 이 중 반수는 농업·가정학교 교사를 겸무하고 있다.

한편, 행정관계 일은 보조금 사용의 적절성 검사, 인허가의 심사, 자연환경 조사 등으로 지도소 업무의 15~20%가 행정관계 업무이다. 따라서 예산의 일부는 지방정부에서 지출된다. 단 지도원에 있어 행정관계의 업무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농가 측에서 보면 일반 공무원보다도 농가를 이해하고 있는 지도원이 이들 업무를 담당하는 편이 낫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도사업에 대해 농가는 원칙적으로 무료로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예외도 있다. 그 중 하나가 보조금에 관계된 서비스로 예를 들면, 건축설계나 농가그룹이 지속적으로 농업지도를 받는 경우 등이다.

원칙은 무료나 실제로 농가는 농업회의소의 회비를 부담하고 있다. 라인랜드 농업회의소의 재정은 주정부 보조금이 70%, 검사 등 수수료수입 15%, 농가의 회비가 15%를 차지하고 있다.

3.1.4.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사례:

바덴·뷔렌벨크주

독일 남부 각주의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이 주로 지방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그 지역 농가의 경영규모가 작고, 경영능력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바덴·뷔렌벨크주 환경식량농림성에는 관리부, 농업부, 농정부 등 6부가 있지만, 농업교육과 지도사업은 농정부의 소관이다. 주는 다시 4개의 행정구로 나뉘어져 행정구 하에 59개의 농업사무소가 있다. 현지 지도사업은 이러한 행정구와 농업사무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농업사무소에는 전부 1,200명의 직원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 3분의 1인 400명은 지도원이다. 원칙적으로 농업사무소에는 부속 농업학교가 두어지고, 소장이 농업학교교장을 겸하며, 직원도 교사, 지도원을 겸하고 있다.

지도사업의 목표도 농산물의 생산과잉, 농업생산성 향상에 따른 수질오염 및 환경·생태계의 파괴 등에 대한 배경에서 생산기술지도가 농산물 품질지도, 자연보호, 경관유지로 이동하고 있다.

지도활동도 직원 감원의 환경에서 기존의 개별지도, 강연회, 강습회라는 방식을 그룹화한 집체교육, TV 및 정보기관을 이용한 정보제공 등으로 변화하고 있다.

그런데 지도원의 활동시간 비율의 약 80%는 행정사무와 교육으로 할당되고, 나머지 20%가 농가에 대한 지도활동에 소비되고 있다. 지도원 1인이 담당하는 농가수는 약 300호(제1종 겸업농가를 포함, 경지면적은 2만 6,000ha)이다.

또 다른 주가 최근 실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방식이 ‘모델·카운셀링’이라는 새로운 컨설턴트 시스템이다. 서로 비슷한 농업 규모와 이에 따르는 공통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농가가 40~50호의 그룹을 조직하여 민간의 전문컨설턴트를 고용, 상담을 받는 것이다. 이 방식은 북독일에서 예전부터 실시되고 있었으나 경영규모가 작고, 경제력이 약한 남독일에서는 실시되지 않았던 것이다.

여기에서 컨설턴트 인건비의 50%는 농가의 회비로 조달되며, 나머지는 주정부가 조달하는 구조이다. 이러한 그룹은 21개 정도이며, 분야별로는 원예 9, 전작 1, 양돈 4, 낙농 4, 생태 3 그룹이다. 단, 상담 내용은 일반적인 생산기술이 아닌, 유기재배, 분뇨처리 등 환경에 관한 과제가 중심이 되고 있다. 이 방식은 농가가 희망하는 고도의 특수한 기술을 습득 가능하게 하고, 컨설턴트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켜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장점이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일반적으로 농가의 인식이 유료 지도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주정부는 농가의 학습그룹에 지도원을 배치하고 지도 이외에 필요에 따라 전문 기술자 등을 불러 교육하는 방침을 모색하고 있다.

바덴·뷔루텐벨크주의 환경식량농림성에서 지도사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부가가치가 높은 농업생산과 그에 필요한 생산기반의 유지, 정비
- ② 토양, 수질, 대기 등 자연의 생활기반의 유지와 보호
- ③ 자연순환의 확보와 종의 다양성의 유지 그리고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지도사업의 과제로 6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농업의 역할에 대한 사회의 요구, 요청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의 책임능력, 자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강화, 둘째, 농업경영 및 농가생활이 환경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의 해결에 공헌할 수 있는 지도활동, 셋째, 농가의 경영과 가계의 조화를 위한 종합적인 상담 실시, 넷째, 시장에 대응하고 환경에 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한 적절한 노동시간 제고, 농업관련분야에서의 소득기회 확대, 협동조합 등을 통한 농가수입의 증가와 소득안정 도모, 다섯째, 가족경영농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고려, 여섯째, 겸업농가에 대한 상담 확대 등이다.

3.2. 네덜란드

세계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중 가장 성공적인 사업의 하나가 네덜란드의 사례라고 알려져 있다. 오늘날 네덜란드 농업의 발전은 지속적인 시험연구, 지도활동, 교육 성과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농업에서 차지하는 교육·훈련사업의 지위는 높으며, 농민의 신뢰 또한 매우 두텁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오면서 농축산물의 생산 억제, 환경문제 등이 대두되고 농민과 지도원과의 괴리발생, 재정상의 어려움이 동시

에 발생하면서 네덜란드 교육·훈련사업도 정부의 손을 벗어나 민영화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3.2.1. 농업인교육·훈련사업 개혁의 배경과 추진현황

공적지도사업 개혁의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요인이 있다.

- ① 정부 재정의 압박
- ② 농산물 과잉에 수반되는 생산제한 등 정책의 변화
- ③ 농가와 지도사업의 관계 변화
- ④ 농가호수의 감소에 따른 농민의 정치력 저하

1990년 이전의 네덜란드 지도사업은 재정 및 운영의 전체적 측면에서 정부가 책임을 부담하였으나 최근에 두 개 부문으로 구분되었다.

그 중 하나는 정부 조직으로 농업정보·지식센터(IKC, Information en Kennis Centrum)를 창설하여 여기에 시험연구 기관과 공적·사적교육훈련 사업을 연결하는 기능을 가지게 하였고, 두 번째는 재편된 공적지도사업(DVL, Dienst Landbou Voorlichtung)으로 이 조직은 농민에 대한 기술적·경제적 서비스를 담당한다. DLV의 역할은 '변화하는 환경, 시장조건에 대한 대응'으로 농민을 지원하는 동시에, 생산물의 품질, 안전성,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DLV에 대한 정부의 재정원조는 1991년 100%에서 매년 5%씩 줄어 향후 50%를 목표로 하였다. 나머지 50%는 농민 외 타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이었다.

1992년에 DLV는 정부 조직에서 단체(재단) 조직이 되었다. 이에 따라 지도원도 국가공무원에서 단체의 고용인이 되었다.

그러나 지도사업의 민영·유료화는 어느 정도의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며 네덜란드 정부에서도 이를 인식하고 있다. 민영·유료화의 문제점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지도활동의 본질을 볼 때 이것은 농민의 교육을 위한 것이다.
- ② 만일 지도원의 일에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면 경제력이 없는 농가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 ③ 교육·훈련은 농업정책을 농가에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고 정책이 농촌현장에 충분히 반영된다면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다.
- ④ 농민 또는 그 조직이 지도사업에 요금을 지불하는 것은 지도활동의 결과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만 할 수 없다. 유료화할 경우 지도원이 과잉 지도행위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유료화 및 민영화는 반드시 효과적인 것만은 아니며, 네덜란드의 경우는 이를 철저히 반영, 과거 지도사업의 결과와 각성을 통해 지속적 개혁을 통한 민영화 방향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3.2.2. 교육주체 유형별 특징

가. 민영화된 공적 교육·훈련사업(DLV)의 특징

DLV는 네덜란드의 농업지도 조직 중 가장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조직 또한 가장 커 조직원이 600명이 넘는다. 전국 26

개 사무소에서 59개의 지역팀을 가지고 있다(그림2). 팀은 축산, 양돈, 밭농업, 과수, 채소, 화훼 등으로 구분되어 있고 활동분야는 생산, 기술, 경영 등 전체에 걸쳐 있다. DLV 업무의 역할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DLV는 공평하게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업경영자, 농업노동자 등 누구나 DLV에 서비스를 요구할 수 있다.
- ② DLV의 활동영역은 농장경제, 작물생산, 병해충방제, 토양비료, 농장건축, 농업기계화, 영양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따라서 장기적인 농업상담과 단기적인 문제 해결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 ③ DLV는 지도 수단은 매우 다양하여 개별상담, 농가방문, 전화 상담 등을 통한 컨설팅 관리와 그 외 그룹 상담, 강의 및 단기연수코스 등도 실시하고 있다. 또 정기적으로 잡지에 기사를 게재하기도 하며, 팜플렛을 발행하기도 한다.
- ④ DLV는 사업 목적에 의거 과학적, 실증적인 정보를 항상 준비하고 있다. 따라서 시험연구, 실증연구의 결과를 충분히 검토한다.
- ⑤ DLV는 각각의 상황에 부합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농가마다 실정이 다르고 각각의 가능성, 불가능성 여부가 다르다. 이를 위해 DLV의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인쇄물, 대화, 시청각, 집단·개인 상담 등이 이용된다(그림3). 지도원 활동시간의 60%는 개별 상담에 사용되고, 20%가 집단 상담, 10%가 지

도준비, 10%가 지도원 자신의 시간으로 사용된다. 이렇게 해서 1명의 지도원이 보통 100농장을 담당하게 된다.

나. 농민조직의 사회경제지도사업(SEV)의 특징

네덜란드 지도사업 특색의 하나로 사회경제지도사업(SEV=Social Economische Voorlichtung)을 독립적으로 조직하여 지도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SEV는 사람들이 농업을 새롭게 시작할 때나 효율적 농업경영을 제고하기 위해 창설된 것이다. 5개의 농민조직이 216명의 지도원을 고용하고, 25개의 사무소를 배치하여 지도서비스를 수행해 왔다. 5개의 농민조직은 네덜란드·카톨릭농민연합(KNBTB), 네덜란드·프로테스탄트농민연합(CNBTB)

그림 2 DLV의 조직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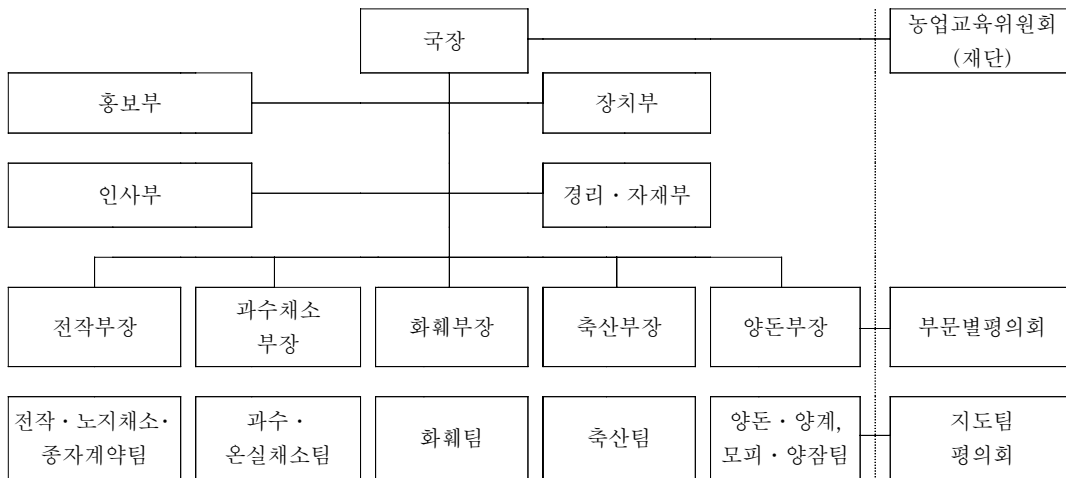


그림 3 지도원의 정보제공 수단

수단	정부지도원							사회·경제지도원							사적지도원 및 컨설팅회사 지도원						
그룹방문																					
강의																					
그룹토의																					
질문의 전화응답																					
팜플렛																					
신간·잡지 기고																					
연수코스																					
농업시찰																					
전시																					
시험장이 조직한 그룹방문																					
기타잡지																					
	1	2	3	4	5	6	7	1	2	3	4	5	6	7	1	2	3	4	5	6	7

주: 7로 갈수록 중요

및 왕립네덜란드 농업위원회(KNLC), 그 외 기타 두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민은 자신과 종파를 같이하는 SEV 지도원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다. SEV 서비스의 취급분야는 다음의 5가지이다.

- ① 농장의 후계: 농장을 인수받을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컨설팅 제공
- ② 농업경영관리: 농업경영을 어떠한 형태(사회, 공동경영 등)로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에 대한 지도·판매, 구매의 가장 현명한 계약방법과 재무문제의 대응방법 등에 대한 조언
- ③ 농업경영의 적응: 농지의 매매, 경작의 수·위탁, 제3자와의 공동경영 등
- ④ 농업의 폐업: 농업을 그만둘 때 법률·규칙문제, 전직문제, 경제적인 전망 등의 문제를 취급
- ⑤ 가족문제: 농업소득과 가족의 수입, 결혼, 상속과의 관계 등의 문제

이 외에, 법률, 규칙문제(예를 들면, 소음방지법, 비료사용규제 등), 토지의 임차문제, 보험(농업, 사회), 세금문제 등을 취급하고 있다.

사회경제지도원은 다른 지도사업과의 제휴를 중시하고 있고 필요하면 다른 분야의 전문가의 힘도 빌리며, 사람들에게 그 전문가를 추천하기도 한다. 또 지역 및 지방은행, 농업관계학교, DLV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사회경제지도원은 후계, 재무, 보험, 토지의 차입, 경영계획, 법률, 규칙, 농업경제, 부기, 세법, 사회보장, 가족문제, 지도방법, 컴퓨터 등 채용 후에 상당히 광범한 분야

의 연수를 수행한다.

활동방식은 일반적으로 농민 쪽에서 지도원에게 접촉을 요구해 온다. 문제에 따라서는 전화 및 편지를 이용하기도 한다. 특수하고 개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지도원이 농가를 방문하는 것이 중시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문제를 취급할 때에는 그룹을 대상으로 지도활동을 수행한다.

다. 기타 교육·훈련주체

① 원예농업재단

지역농민조직 안에 있는 원예농업재단을 통해서 원예분야의 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농가는 경영규모에 따라 결정된 일정액의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다.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고용하고 있지만, 그러한 경우는 유료로 실시되고 있는 것이 많다.

② 자재판매회사, 농산물집하업자, 저장회사

이들은 통상 독자적인 지도원을 고용하고 있다. 자재의 제조·판매회사는 사료 및 농약, 농업기계, 컴퓨터 판매와 병행해서 지도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도원은 판매활동을 벗어나 독자의 지도활동을 하기도 한다. 농산물의 집하업자, 저장회사의 지도원 수는 증가하고 있다.

③ 민간 컨설턴트

기술혁신 및 자동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농업 지도수요는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원예 분야에서는 민간컨설턴트회사가 기존의 지도사업을 대신하기도 한다.

3.2.3. 교육·훈련사업을 지원하는 농업 정보·지식센터(IKC)

전술한 것과 같이 정부는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의 민간이행에 따라 농업정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IKC의 기구와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응용연구 분야와 지도분야와의 제휴는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며, 따라서 정부는 시험연구와 지도 연계를 위해 지도원 대부분을 시험장에 상주시키고 이에 따라 연구자와의 커뮤니케이션 긴밀화를 지속적으로 도모해 왔다.

IKC의 관리기능은 중앙이 하고 있으나 주체는 역시 농업시험장이며, 지방의 IKC 팀은 보급과학, 정보기술, 경제 등의 분야를 중앙에서 지원받고 있다.

네덜란드에는 두 개의 IKC가 있는데 하나는 경종·원예의 IKC이며, 다른 하나는 축산의 IKC이다. 농가에서 입수하고 있는 정보는 이 두 개의 주체의 협력으로부터 입수된다.

3.3. 영국

3.3.1.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의 개혁과정

영국에서는 1946년 농어업식량성 안에 NASS(National Agricultural Advisory Service)가 만들어져 공공지도사업이 시작되었으며 NAAS는 지도와 시험연구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였다. 이후 NAAS는 1972년, 농어업식량성의 농지개량사업, 수리사업, 가축위생사업, 방역사업 등을 흡수하여 ADAS(Agricultural Development and

Advisory Service, 농업개발·지도국)으로서 재편된다. 재편의 이유는 첫째, 재정상의 문제로 직원을 감원하지 않을 수 없던 것, 둘째, 지도사업, 시험연구, 행정과의 관계를 긴밀히 하며, 협력을 강화하는 것에 있었다.

이 조직재편에 의해 6,000명의 직원은 4,000명으로 감소하였다. 그 가운데 600명은 지도원이었다. 그러나 지도원 수가 감소한 만큼 농가에서도 많은 어려움이 뒤따르게 되었다. 어느 지역에서는 108명이던 지도원이 절반이하인 43명이 되어 지도사업의 인간미 결여, 대농가 서비스 저하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에 대해 ADAS는 지도원의 재교육, 농가순회제도의 신설, 민간컨설턴트와의 협력 등의 대책을 강구하였다.

3.3.2. ADAS의 개혁내용과 성과

ADAS 교육·훈련사업의 유료화는 1988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ADAS는 유럽 각국의 지도사업에 대해 포괄적으로 조사하였다. 그 배경에는 재정긴축, 행정개혁, 정부서비스의 축소라는 정책의 흐름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1986년 농업법이 성립되어 ADAS는 새롭게 민영·유료화를 시작하였다. 동시에 그 대상(고객)은 비농업 부문, 나아가 외국까지 확대되었다. 새로운 ADAS의 업무내용은 “FOOD, FARMING, LAND&LEISURE”로 정의되었다.

유료화 실시 이전은 기존 지도원의 대량 퇴직, 농가수요가 없을 경우에 따른 지도원의 애로문제, 대농가 무료컨설팅이 유료화되면서 나타나는 농가와 지도원간의 관계 변화 등의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유료화가 시작되어 어느 정도 정착되었을 때는 상당히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그 내용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유료화 이후 시간의 낭비가 없어졌다.
- ② 자신의 컨설팅이 객관적으로 인정받게 되었다.
- ③ 매년 같은 지도활동을 되풀이하는 지도원이 없어졌다.
- ④ 농가가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컨설팅이 주를 이루었다.
- ⑤ 지도활동이 계획화·체계화되었다.
- ⑥ 지도내용의 질이 향상되었다.

반면 유료화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적 측면은 다음과 같았다.

- ① 새로운 체제가 도입되면서 오히려 사무량이 늘었다.
- ② 지도원의 업무가치가 낮게 평가되고 있다.
- ③ 일을 빨리 정리하고자 하기 때문에 농가의 문제해결이 끝나면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농어업식량성과 새로운 ADAS와의 관계는 <그림 4>와 같다.

새로운 ADAS 민영화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① 고객에 대한 만전의 서비스체제
- ② 현장의 지도원이 기능적으로 지도활동이 가능한 체제

이렇게 재편된 ADAS는 생산부가 지도활동을 총괄하여, 축산, 작물, 원예, 경영관리, 다량화농업, 토지관리, 디자인, 연구개발, 조사분석, 특별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과거 생산성의 향상에 관련된 분야의 활동은 축소하고, 다양성 농업, 환경보전, 동물복지 등의 분야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다(표 1).

ADAS의 유료서비스에서 제외되는 것은 공공적인 분야로 환경, 경관, 동물복지 등이며 이 부문은 여전히 정부가 경비부담을 한다.

교육·훈련사업의 유료화 이후 ADAS가 유료화하기 시작한 최초의 2년간은 과거 40년 동안의 지도사업 경험과 실적을 활용하여, 각 농가에 대한 농업컨설팅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법을 취했지만, 농가에서는 일반론적이 아닌 해당농가의 경영실정에 맞춘 경영지도를 요구한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농업지도에 대한 계약

그림 4 ADAS와 MAFF와의 관계

정부기관일 때(1992년 전)		민영화 이후(1993년부터)	
주체	고객	주체	고객
MAFF ADAS	농가 농민조직 관련기업	ADAS	MAFF 농가 농민조직 관련기업 농외기업

표 1 ADAS의 활동분야와 내용

분야	활동내용
축산작물원예경영관리 부가가치생산	- 사료계획, 축사설계, 사육예측, 지원 및 상담 - 단기·장기의 작물 생산, 수확, 저장에 대한 계획 작성 - 야채, 하우스재배, 과수, 묘목, 구근, 양봉에 대한 지도 - 자금활용, 경영모니터, 경영계획작성 등 자원활용 지도 - 상품화, 처리과 저장, 수송, 품질관리, 판매전략 등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한 지도 및 계획작성
토지관리	- 토지소유, 토지임차, 항공측량, 농장임보전, 지도작성, 토지복원, 경관보전, 토지이용의 선택, 자원평가의 지원
디자인	- 관수에서 배수, 수확에서 처리, 농지운영에서 불경작지 처리 등에 대한 광범위한 기술과 건축기술의 제공
연구개발 조사분석	- R&D의 지원보다는 시험장 및 현지 위탁시험 연구조사에 중점 - 병해충진단, 비료영양 측정, 토양진단, 생산모니터 등의 조사분석에 의한 결과판단 상담
특별사업	- 조사분석, 직원의 능력개발, 이벤트기획 등 농외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수탁

체결이 높은 편은 아니었다.

농가와의 계약은 지도원과 농가의 논의를 통해 지도내용 및 금액을 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그 결과 1년 미만의 계약이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1년 이상의 계약은 매우 미미하였으며, 이에 따라 지도원은 평소에 고객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에 시달리게 되었다. 그러나 컨설팅 내용이 점차 개별 기술보다는 농가의 장기적인 경영전략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이동하여 점차 유료화의 효과를 보게 되었으며 지도원 역시 많은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제도에서는 근무처의 이동이 없으면 승진할 수 없었던 것이 현재에는 이동이 없더라도 승진할 수 있게 되었다. 또, 고객 쪽도 지도원의 이동은 좋아하지 않는다.

둘째, 고객이 지도원을 지명하게 되어 능력보다도 경우에 따라서는 고객과의 인간관계가 중요시 되었다.

셋째, 급료가 능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젊고 유능한 지도원에게는 많은 인센티브 측면과 동기부여에 부응하였다.

넷째, 지도원의 자세가 변하여 농가에 대해 지금까지와 같이 일방적인 지식전달이 아니라 농가의 이야기에 경청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3.3.4. ADAS 이외의 보급사업

가. 우유시장위원회(MMB, Milk Marketing Board)

이 협동조합조직은 영국 우유의 일원집하를 수행하고 있다. MMB는 독자의 지도사업을 운영하고, 농가에 대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우유의 모니터링 및 인공수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낙농에 관한 기술지도면에서는 직접 ADAS와 경쟁, 서비스 대부분이 ADAS와 비슷한 경향이 있다.

나. 개인컨설턴트

이들의 대부분은 MMB 및 ADAS 의 직원 출신으로 이전의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대농가 유료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그 수는 약 200명 정도로 그들은 영국농업 컨설턴트협회(BIAC)라는 중앙단체로 조직화되어 있다.

다. 상업컨설턴트

상업컨설턴트는 기술정보의 전달과 기술의 응용분야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 그것이 개인사업적 측면이 강하나 충분히 지도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생유생산분야에서 MMB의 지도서비스도 유료이기 때문에 결국 낙농가는 MMB나 ADAS 중 한쪽을 선택하게 된다. 또한 개인컨설턴트의 요금은 서비스를 받는 농가에서 그리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ADAS는 지속적으로 경쟁관계에 직면해 있으며, 어느 단체를 통해서 컨설팅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인지 분석해 볼 여지가 있다.

3.4. 덴마크

유럽 내의 평가에 따르면 가장 충실하고 유효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은 덴마크의 사업이라고 한다. 그 이유는 농촌인력의 직업교육에서 취농 이후의 지속교육, 지도사업, 실용시험, 연구개발에 이르기 까지 일련의 교육·연구사업이 상호 관련성 및 정합성을 가지며 효과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덴마크의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이 성립부터 농민을 모체로 만들어지고 육성되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3.4.1. 민간주도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의 특징

덴마크에서는 1880년부터 농업정보사업과 교육·훈련사업이 시작되었다. 이후 이러한 사업은 국가적인 농업정책에 있어서도 비중이 큰 부문에 해당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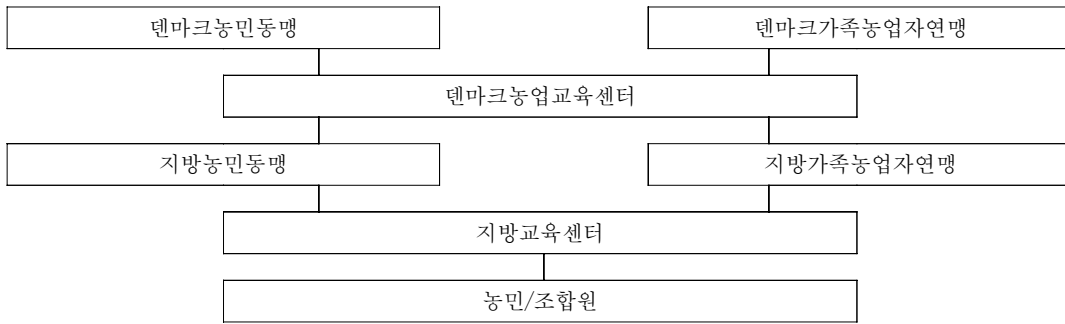
덴마크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의 큰 특징은 다음과 같다.

- ① 교육·훈련사업은 이용자에 의해 관리되고 두 개의 농민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 ② 정부는 보조금을 통해 교육·훈련사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도원의 경우 국가에 제한받지 않도록 되어 있어 경쟁성과 경제적인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 ③ ‘공적’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 ④ 농업 모든 분야의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 ⑤ 사업의 추진은 정부 및 지방의 두 가지 단계에서 실시되고 있다.

①의 두 개의 농민조합이라는 것은 덴마크 농민동맹(Danish Farmers' Union)과 덴마크가족농업자연맹(Danish Family Farmers' Association)이다. 이 양 조직은 상당히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동시에 전국 각지에 지도소를 두고 있다. ⑤에서 말하는 정부차원의 교육·훈련사업은 농업지도센터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또 지방차원에서는 지도소를 거점으로 하고 있다(그림 5).

이 외에 축산 및 작물 관계조직, 생산자

그림 5 덴마크 교육·훈련사업의 조직체계



그룹, 청년농업인연맹 등 모두가 서로 제휴를 이루고 있으며 농업시험장, 기술연구소 등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②에서 제시된 지도사업에 대한 정부역할은 지극히 한정된 부분이며, 지도원의 활동에 대해 간섭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 농업성에는 1~2명의 관계자가 있을 뿐이며 그것도 행정, 재정을 담당하는 직원들이다. 단, 농민교육과 응용 연구면에서는 정부가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덴마크의 교육·훈련사업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 ① 농가에 대해 최신 생산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제공한다.
- ② 농장의 경영계획 및 기술 적용에 있어서 지도원은 농가에 직접적으로 지도활동을 실시한다.

③ 개별 경영체의 기술·경영 데이터를 실시간적으로 기록·분석한다.

④ 실제 농장을 통해 분석, 테스트를 실시한다.

⑤ 농업인, 청년농업인에 대해 평생직업교육의 코스를 설정한다.

⑥ 농가와 시험연구기관 사이의 효과적인 연결고리를 만든다.

⑦ 회계, 세무실무, 경영(자금을 포함한 다)에 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3.4.2. 지방교육센터

덴마크 지방교육센터의 수는 약 100개소이며, 지도원의 수는 농업기사 및 조수를 포함하여 약 3,500명이다(표 2). 지도원은 농민이 조직하는 부문별 위원회와 농업보급센터에서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지도원

표 2 덴마크 지도사업 스태프

	지도원	농업기사·보조원
작물생산	225인	110인
축산	126	185
양돈	70	105
농장건축·농업기계	45	25
농장회계·경영관리	380	2,100
기타	69	45
합계	915	2,570

은 조합에 고용되어 있으며, 그들의 활동은 조합 안에서 선택된 농민의 계획에 따라 실시되고 있다.

지도원 중 3분의 1은 제휴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두 개의 조합에 공동으로 고용되어 있다. 그리고 점차 규모를 확대하여 교육내용의 충실을 꾀하고 있다.

특히 강조할 점은 다른국가에서 공공지도원의 수가 점차 감소하는 가운데 덴마크에서는 오히려 급격히 증원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이유는 지도원의 전문화이다. 농민들이 지도원의 증원을 바라며, 이를 통하여 자신들의 부담증가를 줄이려는 부분이 주목되는 점이다.

또 다른 점은 지도원이 농장의 회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이것은 지도원이 경영지도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으며, 실제 지도원의 50% 이상, 농업기사, 보조원의 80%가 이 분야의 일을 하고 있다. 지방교육센터는 한 개소당 통상 500명에서 2,000명의 조합원에게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70명의 지도원이 활동하고 있다.

규모가 큰 센터는 작물생산, 축산, 양돈, 농장회계, 경영관리 등의 전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규모가 작은 센터는 작물생산, 농장회계 부문을 주 업무로 하고 있다. 교육센터는 이외에 기타업무로 농촌청소년, 농장건축, 농업기계, 생활개선 등에 대한 지도활동을 각 교육센터 간에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도활동의 기본적인 이념은 농민의 자주적인 노력을 보완하고, 원조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결정의 주체는 농민이며, 결과

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도 농민이다.

일반적으로 개개의 농민이 처한 기술적·경제적 또는 사회적·가족적 조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농가지도를 하여 왔으나 점차 그룹을 대상으로 한 지도활동이 늘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농민은 보편적으로 농업경영에 대한 해법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지도활동으로 집회, 연수코스, 농업잡지, 조합원보에 기고 등의 수단을 통해 대농민 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본 교육센터의 이용 방식은 대부분 회계, 세무처리 등이다. 그 외에는 주로 다음과 같다.

① 지도원과 밀접히 접촉하는 그룹은 주로 경영의 효율화에 대한 교육을 지도원에게 요구한다. 보다 구체적이고 밀도 있는 상담을 요구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도원은 정기적인 방문을 통해 해결한다. 예를 들면, 경영의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농가나 농번기의 경영 컨설팅이 필요한 농가 등이다.

② 수년간에 걸쳐 같은 작물을 일관적으로 재배하는 농업단체의 경우, 시비, 자금계획, 재무 등에 대한 수요가 높다.

③ 어떤 단체의 경우는 지도원을 '문제해결자'로서 이용하고자 한다. 예를 들면, 병해충방제 등이 그것이다.

최근의 경향으로 가장 큰 특징은 컴퓨터의 이용이다. 컴퓨터는 지도원에게 있어 상당히 일상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 덴마크농업교육센터가 지방의 지도센터를 위해 개발한 '농업경영관리시스템'이 있는데 농가의 65%가 교육센터를 통해 이를 이용하고

있다. 이 시스템에는 농가 전체의 생산 및 경영데이터가 집적되어 있으며,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으로 지도원은 농가에 대해 같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여러 가지 경우의 일관된 경영상담을 수행할 수 있다. 농가에서도 이 시스템은 시비계획 및 자금계획 등 상당히 다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3.4.3. 농업지도센터

덴마크농업지도센터는 지도사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두 가지 농민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지도센터는 지방의 지도원을 지원하며, 그들에 대해 새로운 기술노하우에 대해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것으로 덴마크 농민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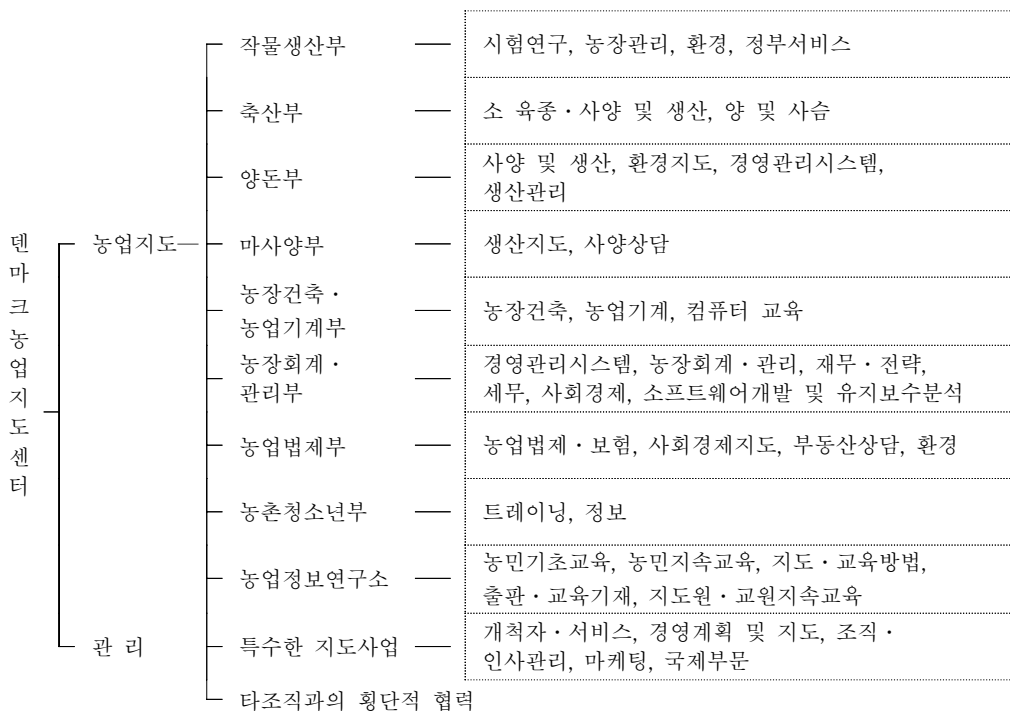
맹, 덴마크 가족농업인연맹에 소속되어 있다. 센터의 운영비는 기본적으로는 농민이 부담하고 있지만, 그 활동에는 정부도 재정적인 원조를 하고 있다.

지도센터의 가장 중심적인 활동은 농가에 직접 접촉하는 지방의 지도원에 대해 새로운 노하우를 전달하는 것이지만, 이들은 전문기술원에 의해 원조, 지식정보의 전달, 시험연구, 조사, 연수 등 기능별 교육을 받고, 향후 센터에서 각부문별로 담당업무를 수행한다.

전문기술원은 지도원에 대해 인쇄물, 전화, 또는 지방교육센터를 통해 정보를 전달하고, 특별한 경우 직접농가를 방문하기도 한다.

농업지도센터의 조직과 업무의 내용을 <그림 6>에 나타낸다.

그림 6 덴마크 농업지도센터의 조직과 업무



이 중 중요한 주체가 농업정보연구소인데 여기에서는 연구기관, 지도조직, 교육시설과 협력하여 농업정보, 지도, 직업교육, 지속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농민 기초교육: 농민에 대한 기초교육 커리큘럼, 교육방법의 개발, 교육기자재의 지원

② 대농민 지속교육: 지속교육을 위한 계획, 조정, 교육방법, 교육기자재 개발지원

③ 지도·교육방법의 개발

④ 출판 및 교육기자재 제작: 지방지도센터, 교육시설 이용에 대한 팜플렛, 서적, 필름, 비디오, 슬라이드 제작.

⑤ 지도원·교원의 지속교육: 지도원·교원의 지속교육의 계획, 조정을 실시

이상의 사업예산은 ① 이용자부담, ②연구개발프로젝트 기금, ③ 중앙단체의 보조금 ④ 정부보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3.4.4. 교육·훈련사업의 재원

1970년대에서는 교육·훈련사업의 재원은 정부보조금 37%, 서비스요금 46%, 조합비 및 회비 17%의 비율이었지만, 1990년대에 각각 14%, 78%, 8%로 농민부담이 현저히 늘어나게 되었다(서비스에 대한 요금은 회계분석, 투자계획, 시비설계, 재고관리 등).

지도원이 농가를 방문하여 컨설팅할 경우, 시간단위로 요금이 계산된다. 단, 전화상담 및 농민이 직접 지도소를 방문하여 지도를 받는 경우는 무료이다. 지속적인 연

수, 집단지도(집회, 출판물 등)에 대해서도 무료로 실시된다.

또, 지도사업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의미에서 협동조합 및 민간회사의 지도원에게는 정부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것은 덴마크의 농업경제에서 큰 역할을 차지하는 협동조합이 교육·훈련사업에 대해서 그다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정부가 향후에도 보조금 감축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 농민측은 여전히 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정부가 감축의 이유로서 들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이다.

첫째, 농업의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지도사업 역시 집중적이지 못하고 자동적으로 분산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관되게 전국적인 교육·훈련사업 네트워크를 구성할 필요가 없어진다.

둘째, 이것은 필연적으로 시험연구 및 교육에 대한 정부의 투자효과가 저효율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또 개별적인 농업컨설팅을 요구하는 농민도 적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전체, 소비자에 있어서는 자연자원의 보전, 환경보호, 식품의 안전성 등에 관한 정보가 보다 중요해진다.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시장경쟁하에서 농업생산, 환경보전, 식품의 안전성 그리고 생활의 질에 대한 균형을 취하는 것에 정부의 시책을 집중시켜야 한다는 인식이다.

4. 유럽의 농업인교육·훈련사업의 시사점

이상의 유럽 4개국의 농업인 교육·훈련의 추진실태에서 얻어진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 네덜란드에서 살펴본 것처럼 창설 이후 정부가 크게 관여하여 온 지도사업이 점차 정부의 손을 떠나 민간으로 이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과도적으로 반관·반민적 형태를 띠고 있으나 점차 완전한 민간조직 중심으로 컨설팅 및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이다. 농가의 이익에 직접적인 연관성을 지닌 교육·훈련사업은 민간·유료지도사업으로 대처하는 한편, 사회적 요구에 의한 교육·훈련사업의 영역은 공교육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는 공적인 분야의 지도사업에 대해서도 민간에 위탁하는 등 민간교육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둘째, 공공, 민간을 따지지 않고, 향후 점점 지도사업의 대상이 되기 어려운 농가(소규모영세농가, 겸업농가)에 대해서 정책이 어떠한 입장을 취하는가도 지도사업의 향후 방향 설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건전한 지역사회·경제를 유지하는 것은 각국 정부에 있어서 큰 정책과제이지만, 그러한 영세 농가를 유지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단순히 조성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서로 모순된 요소를 품은 상황 가운데 주목할 만한 것은 덴마크의 지도사

업일 것이다. 덴마크는 처음부터 농민을 주체로 하여 제도, 조직을 형성, 운영하여 왔기 때문에 농민에 대한 지지와 수요가 높은 편이며, 정부도 그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의 자세를 취하여 왔다. 농민과 교육·훈련사업과의 사이에 거리가 없으며, 농민이 가진 문제가 즉 교육·훈련사업의 과제가 되었다.

셋째, 교육내용면에서 보면, 농업관련 자격을 체계화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있다는 점이다. 덴마크의 경우 농업관련 자격체계가 교육수준에 따라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 직업적인 농민이 되기 위해 최소 30개월 이상의 실습기간을 거쳐야 한다.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도 장기적으로 이론과 실습을 겸비한 재교육을 받을 의무를 부여하여 농업이 단순한 직업이 아닌 전문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넷째, 교육방법면에서는 농촌 실정에 맞는 교육·연수체제가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각국의 경우 교육프로그램의 중심을 농업인력에게 두고 실질적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생활전반에 걸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대상에 있어서도 농업경영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경영주를 포함한 그의 배우자, 가족구성원, 임금노동자들까지 포괄하고 있다. 교육방법에 있어서도 실습과 조별 구성을 통하여 교육생 각자의 의견과 현장경험을 교환하고, 공동의 해결사항을 토론하는 현장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끝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력 간에 농업

지식 및 정보의 원활한 공유체계를 구축하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기관이 대부분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농업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하여 농업인이 직접 신청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참 고 문 헌

- 정철영, 이용환, 나승일. 2001. “국외의 농업인력 정책 분석 및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 한국농업교육학회지. 34(2).
- 藤田康樹. 1995. “21世紀への農業普及.” 社團法人 農産漁村文化協會.
- 竹中久二雄外. 1994. 『世界の農業支援システム』. 社團法人 農産漁村文化協會.

- Ministerium für Ländlichen Raum. 1991.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Forsten Baden-Württemberg. *Konzeption für die Weiterentwicklung der Landwirtschaftsberatung*. pp. 6-8.
- R. Bell. Report of a Study of ADAS,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p. 16.
- J. Rüttimann. 1985. Die Landwirtschaftliche Betriebsberatung in der Schweiz, Bundesamt für Landwirtschaft, Sektion Berufsbildung und Beratung.
- Situation du Développement Agricole dans les de la C. E. E. 1991. Association Nationale pour le Développement Agricole.

■ 원고접수일 : 2004년 5월 4일
원고심사일 : 2004년 5월 11일
심사완료일 : 2004년 5월 29일